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열왕기하
구역예배 · 에스겔서
남성구역예배 · 갈라디아서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열왕기하

구역예배 · 에스겔서

남성구역예배 · 갈라디아서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지금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요 세계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를 추켜세우지만, 우리들은 성장의 배후에 가려져 있는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분열상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누가 조장 해왔고 무엇 때문에 그 분열이 조장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회와 카톨릭이 손을 잡고, 개신교와 불교도가 화합을 선언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사건이 강조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싸움과 분열의 피상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보다는 현실정치를, 예수 그리스도 보다는 정치적인 연대와 연합을 더 중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려, 우리들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를 위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2000년 4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 2000년 4월 —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열왕기하 서론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구속사 안에서의 열왕들의 드라마는 열왕기하에서 계속됩니다. 연속적으로 등장한 19명의 악한 왕들에 의해 통치되던 북 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의해 멸하여지면서 일시적으로 남 유다는 경건한 왕들의 헌신 속에서 빛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 유다도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멸하듯 바벨론에게 삼키우고 맙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는 BC 853년에서 722년까지 131년의 세월을 담고 있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히스기야의 통치(BC 715)로부터 여호야긴의 석방(BC 560)까지 약 155년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시 열왕기상과 마찬가지로, 열왕들의 세력이 넘실대는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곡예하듯 국제정치의 틈에 끼어보려고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했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성소가 회복되고 진실한 예배가 살아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의지만이 그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주요내용

1. 오므리 왕가 아합 자손들의 통치기(1:1-8:29)
2. 예후와 오므리 왕가의 종말(9:1-10:36)
3. 예후 왕가의 통치기(11:1-14:29)
4.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15:1-17:41)
5. 히스기야의 신앙부흥(18:1-20:21)
6. 므낫세와 아몬에 의한 타락복귀(21:1-26)
7. 요시아(22:1-23:30)
8. 유다의 마지막 운명(23:31-25:30)

엔젠가 수련회 참석을 독려하는 팜플렛을 펼쳐 보다가 시선을 사로잡은 특이한 문구를 발견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필수 준비물 :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선자자를 찾아옵니다. 이 과부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아이를 종으로 부리겠다는 통보를 받고 곤궁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최고 6년까지 종으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출 21:2).

여인의 딱한 처지를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의 빈 그릇들을 가난한 많이 빌어온 후 집에 남은 한 병의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모든 그릇마다 기름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적은 믿음과 순종이 동반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앙으로 가득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은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분의 백성을 기적을 통해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만큼, 열린 마음만큼 채워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자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73장 본문 / 왕하 4:8-17

고도의 물질문명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자기 성취에 급급한 나머지 험벗고 소외된 이웃을 돌볼 여유와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류. 바로 이런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환대(歡待)일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베푼 한 여인의 환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엘리사가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를 왕래할 때 지나게 되는 길목인 수냄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엘리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고 그가 쉴 수 있는 작은 방까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환대는 부지중에 천사를 환대하듯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축복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환대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듣고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인의 큰 수치였기에 엘리사의 축복은 최상의 보답이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한 결과 자신의 수치를 면하게 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환대를 베푸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환대를 베푸는 헌신적인 삶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②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시대를 깨우는 등대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3

(월) 살아 있는 믿음

찬송가 / 397장 본문 / 왕하 4:18-37

중히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말을 합니다. 백 번 옳은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면 자신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로서 모두 뛰어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하면서 그들 앞에 펼쳐진 위협적인 상황들을 목격하자 그들 중 열 명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참 신앙을 보여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수벴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일사병으로 생각되는 병에 걸려 죽자, 아들을 잃은 심적 충격과 남편의 만류를 뒤로한 채 즉시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찾아 30km의 길을 나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나아가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지팡이를 사환 게하시에게 주어 아이의 얼굴에 얹어 놓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자 자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에 몸을 포개 누움으로써 그를 소생시키는 이적을 행합니다. 즉, 아들이 죽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보답하신 것입니다. **살아 있는 믿음을 간직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떡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신자를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지만 떡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를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엘리사에 의한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모두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첫째 이적은 당시 선지 학교가 있던 길갈에서 행해진 것으로 흉년 기간 중에 선지 생도들이 먹기 위해 끓인 국에 들어 있는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이적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야동 덩굴(39절)로 번역된 식물은 요단 계곡의 초원 지대에서 나는 호박 종류의 식물로서 그 열매는 매우 쓰고 구토증을 일으키는데, 본문의 독은 바로 이 열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둘째 이적은 보리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한 것입니다. 당시 보리 떡 한 개는 성인 한 명의 한끼 식사에 해당했습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궁핍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6:33).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5

(수) 치유를 중재한 사람들

찬송가 / 275장 본문 / 왕하 5:1-19

민음의 뒀안길을 보면서 우리는 줄곧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롬 8:28). 본문에 소개되는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를 보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 노예 소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는 주인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도우실 수 있는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둘째, 나아만의 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의 건성적인 답변에 화가 난 주인 나아만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직접 의식을 집행하리라고 기대했지, 가서 목욕하라는 따위의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의 지혜로운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아만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치유의 이적을 베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근원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본문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린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입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끌려 그만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일행을 급히 뒤따라가서 아주 그럴 듯한 거짓말을 꾸며내어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 상당량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엘리사가 추궁을 하자 급기야 그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욕심은 죄를 출산하고 죄는 사망을 불러오는 법입니다(약 1:15). 결국 그는 탐욕과 거짓말의 대가로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까지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란 죄악이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발견한 반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구원의 청사진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킵시다.

▶ 기도 제목 / 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안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근시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해서 근시는 물체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뭉뚱하고 흐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빛을 예리한 초점에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근시는 아주 쉽게 발견되며 오목렌즈를 착용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근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 근시의 증세는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점들과 장애물들과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는 초점이 맞추어지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정면으로 부딪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힘과 보호의 저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 근시를 지니고 있는 한 엘리사의 사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와 자신이 거처하는 도단 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아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고 엘리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고백합니다. 그는 문제점에는 초점을 맞추었으나 (15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단지 아람의 군대만 보았던 사환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싼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구성된 하늘의 병력은 땅의 병력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영적 근시에서 벗어나시다.

▶ 기도 제목 / ① 땅의 문제점과 현실만을 보는 영적 근시에서 벗어나 하늘의 병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나라 속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주권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며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환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로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살펴 보겠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산동성이에 자리잡은 요새지였기에 쉽게 공략할 수 없어 오로지 굶주림에 지쳐 항복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은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내의 경제 형편은 참담해졌으며 급기야 배가 고파 어린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 곧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악행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엘리사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32절). 그들은 모름지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환난의 때에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상 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삽니다. 절망의 끝인 죽음도 그 믿음을 억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내어버린 절망은 어떤 결과가 있기 전이라도 이미 패망과 동일합니다.

사마리아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군대가 포위하자 식량이 고갈되어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광란의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파멸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향해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음식이 희귀하여 나귀머리 하나에 팔십세겔 하던 물가가 고운가루(밀가루) 한 스아(5-7리터)에 한 세겔로 떨어지는 은총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1절). 그러나, 절망에 빠진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홀이 여기고 경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믿음은 보장된 현실에서 뿐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고백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절망은 곧 패망입니다

▶ 기도제목 / ①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귀한 것일수록 독점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결코 부담스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대로 순종해 본 사람은 그 명령에 담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특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힌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 성 밖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심으로 아람군인들로 하여금 모든 군비품을 내버려 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네 사람의 문둥이(한센씨병 환자)들에게 발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후, 곧 성으로 가서, 성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거로 인해 온 성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성안에서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아가 이 소식을 전할 차례입니다.

받은 자가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생명의 복음을 받은 저를 복음의 증인을 써 주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선 교사 토마스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국땅을 밟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본문의 전반부에는 이전에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여인과 그 가족이 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가족은 엘리사의 예언과 권면에 따라 기근을 피해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했다가 칠년후 귀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전도가 남의 소유로 넘어간 것을 알고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에게 그 여인과 아들과 엘리사가 함께 엮어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여인의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는 병든 아람왕 벤하닷의 치유여부를 물으러 온 하사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그가 장차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를 고합니다. 하사엘은 귀환하여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람의 역사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백성의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과 자신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되자’는 말보다 호소력이 강한 말도 드뭅니다. 하나됨 안에는 이해와 관용, 연합과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됨은 파멸을 위한 연합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형제국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는 적대 세력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제국끼리 힘을 합치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을 위한 매우 설득력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따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주 오가며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이 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멸을 향한 대책 없는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숭배에 깊숙이 젖어들어 있었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바알신앙의 적극적인 공격에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실이 바알신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파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나는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해 연합하는 일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제목 / 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멸망합니다. 칼은 칼로 망하고, 권력은 권력으로 망합니다. 세상은 사람 손에 쥐어진 권력의 힘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영원한 악한 정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남편 아합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바알신앙으로 장악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어놓으신 토지소유법을 무너뜨리고 시돈의 권력중심적 토지소유법을 끌어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서민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딸을 유다에 시집보내 유다마저 바알신앙으로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바알 선교사였고,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니 그 권세가 너무도 간단하게 사그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후를 왕으로 기름부으시면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그가 감당할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에따라 이세벨의 아들 요람과 그와 연합한 유다왕 아하시야가 한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위세를 부리던 이세벨의 몸을 들개들에게 찢기도록 내어 던지십니다. 아합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날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
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
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한 업무 때문에 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자동속도 측정기에 사진이 찍혀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 편지는 가슴을 뜨끔하게 합니다. 후회한들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편지는 마음을 쓰다듬어 평안을 일으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장로들과 교사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보낸 편지는 자기를 향해 대적하려면 대적하라는 경고용 편지였고, 두 번째 편지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 자기에게 보내면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편지였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공포스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교사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르치고 돌보던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뺏니다. 결국, 아합의 모든 아들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은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어떤 편지는 위로의 사랑스런 권면이. 어떤 편지에는 무섭고도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나에게 배달되는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자신의 언행심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랑을 드러내어야 할 사람임을 잘 알고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 ▶ 기도제목 / 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고귀한 사랑일수록 그것은 배타적인 성격을 띠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도 눈길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심의 신앙'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신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합 집안을 꺾멸시키고 바알 신앙을 뿌리 뽑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는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레갑족속의 지도자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을 내어서 바알선지자들을 바알의 당에 모두 모아 처단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당을 훼파하여 변소로 만듭니다. 참으로 철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후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십니다(30절). 그런데,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자기 욕망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성경은 예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좇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기도제목 / 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뜻만 따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처세를 위해서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대세를 거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후,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아합과 이세벨의 딸)는 유다 왕권을 바알신앙으로 장악하기 위해 왕의 씨를 진멸하고자 일어섰습니다. 이세벨을 생각할 때 그의 딸에게도 있음직한 광란적 권력욕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끝내 아달랴는 자신의 손주들을 모조리 죽이고서 권좌에 올라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런 공포스런 피의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서 다윗을 통해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왕하8:19)을 기억한 여호세바(아하시야의 누이)는 한 살된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빼내어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기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다윗 왕권의 복원을 위해 6년의 세월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여호야다는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상호간에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케 한 후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야 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장관들과 국민들과 군대가 총집결한 상태에서 대관식은 거행되고 아달랴는 그 틈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한 여인 여호세바의 믿음의 모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대세를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솔로몬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모금하여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사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모아서 다시는 헌금을 거두지 말고, 백성들이 직접 헌금을 바치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4-8). 감독의 성실한 책임수행을 통해 솔로몬 성전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9-16).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방백들은 우상을 섬길 것을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스가랴가 왕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스가랴를 죽이면서까지 방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그는 우상을 섬기자고 제안하는 방백들의 간청에 못이겨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징계를 하셨지만 그는 깨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선물 공세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신복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붙잡아야 할 교훈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제안들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붙잡아야 할 교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제목 / 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주변에 준비하게 놓여진 행복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걷어차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간 북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의 학대에 못견딘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듣고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목상을 사마리아에 두고 섬겼습니다.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타작 마당의 먼지처럼 날려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여호아하스는 결국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1-9). 그 뒤를 이은 요아스는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 하였다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10-13). 우리는 과거를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길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요아스도 아버지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의 길을 선택해야 했건만, 역시 불행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나 부모님들의 과거를 통해 불행한 길을 청산하고 있습니까?

과거는 인생의 거울입니다.

▶기도제목 / ①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행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찮은 소망의 줄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떠합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는 엘리사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소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권력과 승리의 상징인 활과 화살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향해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아람에 대한 승리의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다시 엘리사는 왕에게 나머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은 세 번 땅을 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쏘는 수만권의 승리를 주시려고 했으나 왕이 멈추고 만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없는 왕에게 화를 내면서 부분적인 승리만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잠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5).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그의 시체에 닿은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은 선조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소망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은혜 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 기도제목 / ① 언약의 말씀과 은총을 붙잡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265장 본문 / 왕하14:1-22

때 때로 급커브 길을 운전하게 됩니다. 이 때는 반드시 미리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면서 무시해 버리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경고가 주어질 때 그 경고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아마샤는 25세에 왕이 되어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아스 왕을 본받아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부왕을 죽인 자들을 멸하여 왕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했고,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행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다윗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침공한 후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그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실 우상숭배에 빠진 아마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고집하는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대하25:14-20). 벨세메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경고판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판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인생의 경고판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자주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 합니다. 내가 하는일은 자꾸 악하니; 반면 불신자들은 잘 되어가는 것을 볼때 자존심도 상하고 신앙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였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때를 건줄만한 부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의 예언처럼 그가 받은 축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치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역시 여로보암 1세의 우상숭배의 길을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참된 번영이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성, 화려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계18:2). 무너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영적인 부요함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요함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번영은 영적인 번영에 있습니다.

▶ 기도제목 / ① 경제적인 가난에 초연하고 영적인 가난을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30장 본문 / 왕하15:1-16

우리는 거만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반면, 거만을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사랴(웃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정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의 불행이 교만에 근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그의 마음이 성직자의 권한을 침범하게 하였습니다(대하26:16-21).

사실, 웃시야가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입지가 확고하게 되고 주변이 강화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그 교만함은 자연스럽게 월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자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것이고, 사람들은 교만한 나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면서 멀리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생에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콜 중독에서, 도박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도 그 습관이 좋지않은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나쁜 습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년간 치리하는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못했고, 앗수르 왕 불이 침입했을 때 큰 부자에게서 토색한 돈으로 뇌물을 주어 자기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사악한 방법이었고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17-22). 뒤이은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와 베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다(24, 28).

당신이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 동안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부담감을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자리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해갈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 여호와와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머물지 않을 곳에 머무는 것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떠나야 할 자리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릴때 산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소낙비가 오면 피할 곳을 찾아다니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를 깎아서 포근한 피난처를 만듭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마음을 편안히 설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했지만 여로보암이 범했던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을 뿐만아니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몰록 신까지 섬겼습니다. 친 앗수르 정책을 펴는 아하스에게 반감을 가진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만 했지만, 앗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가지고 사신을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앗수르 왕은 아람을 정복하고 잠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머물면서 아하스 왕을 만나기 원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던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에 매료되어 그 모양을 본떠서 예루살렘에도 만들어 두라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야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기 보다 왕의 명령을 지켜 그를 즐겁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제사를 폐하고 많은 산당들을 세워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 주력했습니다. 영적 패륜아 아하스, 그는 하나님을 택하기 보다 자신의 만족과 인간 나라를 의지하여 피난처 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도 십자가 그늘에서 안식을 얻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가 멸망 할 때는 멸망의 전조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도 멸망의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인 여로보암 이후(왕상 12:27-33)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뒤로한 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물들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죄로 내리 달았던 북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지 꼭 210년만의 일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이전의 왕보다 특별히 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선왕들로부터 계속 되어온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알곡한 체계는 언제나 그 한계를 드러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라는 것입니다(시 146:3,4).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불신앙(7절)을 돌이키고, 또한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9절) 그리고 공개적인 반역(10절)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악에 팔려 하나님으로 부터 책망을 듣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때로 징계와 고난을 대하면서 마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할 악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자녀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해서 앗수르를 이스라엘 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최초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자신의 위치나 입장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앗수르화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앗수르의 우상들이 들어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혼합되어 타락된 종교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참고, 요4장, 행8장). 이 일은 비단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끔은 자신의 친구로서 어울려 주기를 원하고 또한 가끔은 세상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앗수르적 마귀의 혼합 정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만을 기쁘게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여러분들은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갑작스런 사고! 등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평소에 가늠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 닥쳐 보면 그 사람의 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앗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당황되고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금방 앗수르의 강력한 라이벌인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달려가서 원군을 청하면 좋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기 보다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큰일을 당한 히스기야는 먼저 상황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열왕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께 연합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께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산헤립과 같은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총명함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정직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다.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지 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강한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약육강식의 이론에 익숙해져서 함께 더불어 가는 삶에 있어서는 매우 약합니다. 이렇듯 강한 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신앙 공동체도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앗수르의 산헤립은 그 당시 두려울 것이 없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산헤립이 마음을 먹은 일들은 언제나 쉽게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앗수르를 꺾을 어떤 나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산헤립이 이제는 유다 까지 삼킬 계획을 가지고 대장 랍사게를 앞세워 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유다로부터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받고도 랍사게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의 군대를 치려 했습니다. 이제 산헤립의 앗수르 군대와 예루살렘의 유다 군대가 대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앗수르 대장 랍사게가 "열국의 신들 중에서 앗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합니다(33절).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기까지 했습니다(35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산헤립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서 나는 줄을 알고 교만한자의 꺾임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온통 벌떼와 같이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참 구원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읍시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없고 전적으로 다른 누구 때문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대들기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산헤립의 위협과 살기 동등함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족은듯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책임을 다른 곳에 떠 넘기고 자신은 위기에서 쏙 빠져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모든 문제들을 들고 여호와와 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산헤립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24절).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놀라운 징조를 허락 받았습니다. 그것은 “앗수르 군대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리라”(33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던 날 밤 여호와와 사자가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쳐서 송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능욕하던 산헤립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군왕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유다에 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여호와와 이름과 여호와와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을 높임시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케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기도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기도 에라도 힘 쓸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용병이 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나치게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실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2절).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3절).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조차 지나치게 외식적이며 자기 행적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적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렘29:12,13절) 약속하셨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던 히스기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 받으셨습니다. 보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서론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란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장 가운데 펼쳐질 다양한 일들을 현란한 환상과 함축적인 상징적 행동과 폐부를 찌르는 듯한 비유와 장엄한 말씀선포로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와 같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에스겔서는 철저한 절망가운데 있는 유다백성의 회복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거듭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로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상실한 유다백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선민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길을 찾아 가려할 때는 멸망에 이를 수 밖에 없었으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본서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다시 구속사의 주역이 됨으로써 역사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서 예언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 재림 후에 있을 역사 종말의 때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 중심의 새 나라의 도래가 본서의 말미에 (40-48장)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40-48장이 바로 본서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는 인류의 역사가 사단의 이끌림에 의해 파멸되

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는 궁극적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사단과의 싸움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기본 구성

요점	에스겔의 소명		유다에 임할 심판	열국에 임할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의 영광			
문단	1:1 2:1 4:1 25:1 33:1 34:1 38:1 40:1 44:1 47:1 48:35									
구분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의 소명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상징, 이상, 비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	이스라엘의 회복	국과의 전쟁	새 성전 환상	새 예배 규례	거룩한 새땅
주제	예언의 주체		패역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			
문체	많은 상징과 비유와 환상이 등장하는 화려한 문체의 묵시문학									
장소	바벨론									
기간	B.C. 593-571년									

제 1 과

에스겔서 (1)

부르심

찬 송 / 275장
읽을 말씀 / 1:1-3:27
공부할 말씀 / 2:1-10

먼저읽기

유다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는 역사는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1차는 B.C 605년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제2차는 B.C 597년으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며 제3차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오늘의 장면은 B.C.597년의 제2차포로사건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수용지인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만 생각하여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인 양 생각하며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에스겔에게 말하며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분은 누구입니까?(1, 2절)
2.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성향은 어떠합니까?(3, 4절)
3.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때 처할 수 있는 위험과 그것에 대하여 에스겔이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6절)
4. 말씀을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2:5, 3:18,19)
5.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에스겔이 삶 속에서 만나는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느끼며 만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기도와 실천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특별히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지역, 또는 나라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 대상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3. 딤후1:8에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처했던 난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난관을 극복해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4.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잘 들어준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잘 들어줌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순적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너무 들어주지 않음으로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특히 잘 듣고자 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십시오.

5. 엡6:19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지만 그와같은 실천이 있기 이전에 전할 말씀을 잘 배우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둘러앉은 성도들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약 5분 정도 아무 것도 보지 말고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더 배울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제 2 과

에스겔서 (2)

이마에 표를 받을 자

찬 송 / 35장

읽을 말씀 / 4:1-10:22

공부할 말씀 / 9:1-11

먼저읽기

시121편 4-6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왕하6장15-17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쌓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

리는 한 순간도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그 능력이 그 천사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며 죄가운데 머물 때에는 그 능력과 그 불말과 불 병거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성읍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당신이 있다고 하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은 당신의 이마에 표를 하겠습니까?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심판을 행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9장1절, 3절 / 8장1절, 2절)
2.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1절, 2절)
3.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4절)
4.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에 임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9장9절, 8장5-15절 참조)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그 이마에 표를 받게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민감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자로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러한 안타까움에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2. 에스겔서 9장에서는 구원 받을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임을 요한 계시록이 증거합니다.(계7:2) 구원 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입니다.(계7:14)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며 구원의 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표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 중에 당신이 가장 시급히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제 3 과

에스겔서(3)

위로와 소망의 빛

찬 송 / 500장

읽을 말씀 / 11:1-14:23

공부할 말씀 / 11:13-25

먼저읽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알아가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유다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불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의 분위기만 계속 된다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은 절망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궁하신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떡이 없음으로 죽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있다하여도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으

면서도 결국은 목말라 죽어가는 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교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13절) 또한 멸절되어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14절)
2. 한 편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의 사람들은 그 같은 불행 중에서도 피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이들 중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렘24:1-10참조) 바벨론에의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15절)
3.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16절-21절)
 - *16절:
 - *17절:
 - *19절:
 - *20절:

4. 은혜와 소망의 약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21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멸절되어 가는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답답하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남과 같이 괘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포로된 백성들이 그가 돌보아야 하는 형제와 친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당신이 돌아보기를,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나 형제 친족은 없는지요.

3. 포로된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부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복을 나누어 보십시오.

1. 주님, 하나님께 영광

4.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의 동편에 머무는 모습은 여호와와의 영광이 더럽힌 성전을 떠나며 패역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떠나 가시면 내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머무는 은혜의 삶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과

에스겔서 (4)

한 나무

찬 송 / 135장

읽을 말씀 / 15:1-24:27

공부할 말씀 / 17:1-24

먼저읽기

예수님께서서는 마 6:24을 통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묘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물론 세상에 딛고 있는 그 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딛고 있는 발이라면 괜찮겠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발이요 세상을 의지하는 발이라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두시고 아직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시드기야왕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세상의 나무들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연약해 보이고 말라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성케 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나무를 우리는 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야 말로 모든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소망의 나무인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에 나타난 비유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3절: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술한 큰 독수리
(겔17:12, 왕하24:10-12 참조)

*4절: 백향목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 끝(겔17:12, 왕하24:10-12참조)

*5절: 그 땅의 종자(굵은가지와 가는가지가 난 포도나무)
(겔17:13, 왕하24:17참조)

*5절: 옥토(왕하24:18참조)

*7절: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겔17:15)

*7절: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뿌리를 향함(겔17:15)

*22절: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

*23절: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일 것

2. 본문에 나타난 포도나무는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아 간 여호야킨왕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세운 시드기야왕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나무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무엇입니까?(8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행한 포도나무의 모습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7절, 10절)

3.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세울 메시야의 모습이 겔17:22-24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연한가지:

•낮은나무:

•마른나무: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파괴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뿌리를 향하기 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가장 든든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은 연한 가지로 이 땅에 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한 가지가 무성하여 지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루었으며 각양 새가 그 가지 그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편1편에서는 복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형편은 어떠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시절을 좇아 당신이 맺는 과실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 당신의 그늘에 거하며 안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3.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는 왕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까지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땅히 푸르고 푸른 백향목의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영역이나 회생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7.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4. 성령의 사람들은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올해 가장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나누어봅시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0과

신령한 사람

찬 송 / 177장

읽을 말씀 / 갈 6:1-10

외울 말씀 / 갈 6:9

본문

-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
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6: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니라
- 6: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 6: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 6: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
라
-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
르매 거두리라
-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욱 믿음의

들어가기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때 당신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정의

출40:34-38과 갈5:16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당신의 말로 해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들의 삶(갈6:1-10)

- 범죄한 사람에 대한 태도(6:1)
- 상호관계(6:2,3)
- 자랑(6:4,5)
- 영적지도자와의 관계(6:6)
- 생의 투자(6:8)
- 인내(6:9)
- 착한 일(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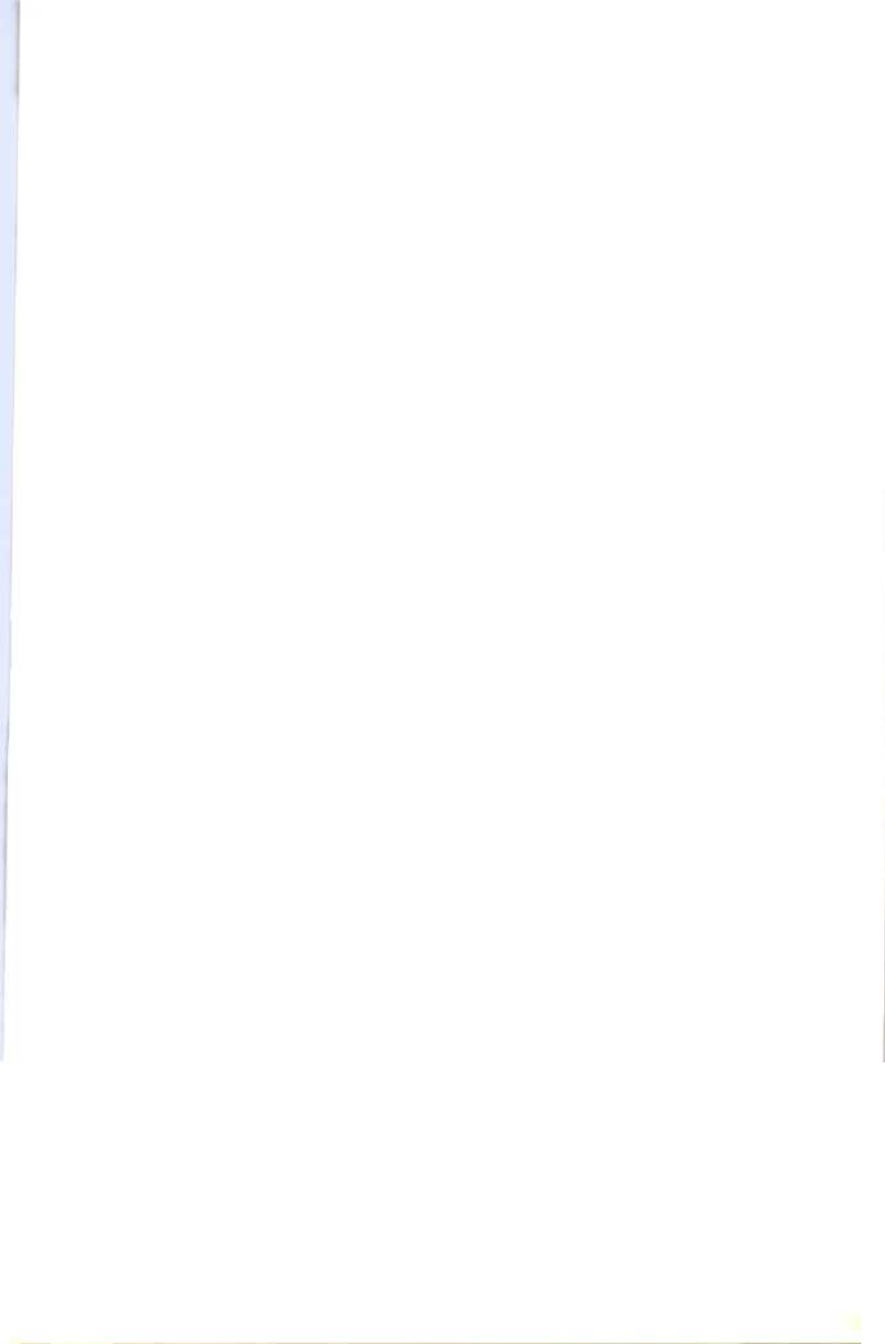
마무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신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영역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MEMO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0년 4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갑선, 김병태, 김인석, 이승학 목사

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